

발전기금을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 4. 27- 2004. 5. 9)

<p>■ 동문</p> <p>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동문회5,770만원</p> <p>여상각 (삼보섬유대표, 농화학과 졸업) ...1,000만원</p> <p>성진용 (영백산업대표, 농화학과 졸업) ...1,000만원</p> <p>재수원(경북대학교동문회 회장 상종환)100만원</p> <p>박현진 (파티마병원 영양과)10만원</p> <p>권순철 (주)수양 소장)10만원</p> <p>■ 교직원</p> <p>이영조 (행정학과 명예교수)5,000만원</p> <p>정기택 (식품공학과 명예교수)100만원</p> <p>노시갑 (천연섬유학과 교수)50만원</p> <p>서창교 (경영학부 교수)20만원</p> <p>■ 기업체</p> <p>비스코아시아1,000만원</p> <p>■ 후원의집</p> <p>김복환 (비원)40만원</p> <p>석의근 (귀신)30만원</p> <p>노정섭 (대어초밥)30만원</p> <p>전필순 (동해복어)30만원</p> <p>김남희 (성주한우명가)10만원</p>	<p>■ 일반인</p> <p>백승진 (복현동거주)10만원</p> <p>이승훈 (김사동거주)10만원</p> <p>■ 기타</p> <p>경북대 센서기술연구소1,375,000원</p> <p>전자기술연구소75만원</p> <p>■ Green Campus기금</p> <p>주보돈 (교수회의장)50만원</p> <p>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부30만원</p> <p>박용달 (도서관사서)10만원</p> <p>이육분 (평생교육원 원장)10만원</p> <p>권순자 (예술대 행정실장)10만원</p> <p>정상택 (체육교육과 교수)10만원</p> <p>강신성 (생물학과 교수)10만원</p> <p>조길호 (통계학과 교수)10만원</p> <p>송재기 (통계학과 교수)10만원</p> <p>최달현 (사회대 명예교수)10만원</p> <p>- 경북대학교직원협의회 -</p> <p>우종진 (회장)50만원</p> <p>김종환 (부회장)10만원</p>	<p>김진욱 (부회장)10만원</p> <p>심세향 (부회장)10만원</p> <p>김진만 (부회장)10만원</p> <p>권오준 (부회장)10만원</p> <p>추성엽 (총무)10만원</p> <p>박상훈 (기획분과위원장)10만원</p> <p>최동호 (기획분과위원)8만원</p> <p>우병호 (기획분과위원)8만원</p> <p>유병훈 (기획분과위원)5만원</p> <p>김성엽 (기획분과위원)5만원</p> <p>김현정 (기획분과위원)5만원</p> <p>이수용 (행사분과위원장)10만원</p> <p>박경서 (행사분과위원)8만원</p> <p>서우희 (행사분과위원)5만원</p> <p>정연길 (행사분과위원)5만원</p> <p>김정숙 (행사분과위원)5만원</p> <p>서상덕 (복지분과위원장)10만원</p> <p>양재용 (복지분과위원)5만원</p> <p>배병태 (복지분과위원)8만원</p> <p>황정희 (복지분과위원)5만원</p>
---	--	--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시려면
 참여 의사를 전화로 ☎ 053-950-6079 알려주시거나
 아래 금융기관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조흥은행 801-01-072162 / 예금주명 : 경북대학교 발전후원회

'상주인의 밤' 행사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6일 대학 기숙사에서, 지난해 시작한 관학협력 사업인 향토생활관 건립을 위해 최초로 건립기금을 출연한 상주시와 상주출신 재학생들이 함께 하는 '상주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3면에서 계속)



2004 5/13 966호

경북대소식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주요 소식

- ▶ 본교 자연사박물관 개관3면
- ▶ 본교 세계 SCI논문 게재순위 상승4면
- ▶ 교수학습센터 개소 설립기념 세미나5면
- ▶ 본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준공6면



문화적 무지

경북대소식 2004.5.13



유병갑 변호사
(법학과 52학번, 전 경북대 총동창회장)

- 기 고 2.. 문화적 무지
- 경대포커스 3.. 본교, 자연사 박물관 개관
- 4.. 본교, 세계 SCI논문 게재순위 18단계 상승
- 5.. 교수학습센터 개소 설립기념 세미나
- 6.. 본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준공식
- 7.. 손동철·하영호 교수 한국과학재단 '2004년도 우수연구성과 30선' 선정
- 8.. 2004년 1학기 학생현황 / 학습심포지엄
- 인사·동정 9..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공로상 수상 외
- 출간·치상 9.. 「사과의 건강 기능성과 신기술」출간 외
- 알립니다 10~11 .. 학생기숙사사생활수칙 개정 외
- 발전기금 12 .. 2004. 4. 27~2004. 5. 9 기탁자 명단

우리들의 일상적公私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무지(?)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잘 몰라서, 연구부족으로, 무관심해서,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 뿌리는 여러 가지이나, 보기 안 좋고, 공연한 문화적 혼동만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많다. 소위 지식인, 지도층이라고 할만한 사람들 가운데도, 문화적 무신경 내지 둔감자가 생각보다 많다. 몇 가지 단편적 사례를 보자.

우리 나라의 우편번호 기호(㉠)와 일본 것(〒)은 그 모양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 기호(〒)를 아무 거리낌없이, 예사로, 명함, 봉투, 문서용지 등에 인쇄하여 버젓이 돌리고 있는걸 보면, 기가 막힌다. 지식인, 문화 예술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뜨인다. 그런 것을 일본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반문화적 무지가 공연히 사서 망신을 초래한다. 제발 이런 무지는 즉각 중단하고, 당연히 우리 표시(㉠)를 사용해야 옳다.

명함 등에 휴대폰 번호 표시라고, 흔히 H. P. 라고 적고있으나, 그건 한국에서만 통하는 콩글리쉬다. 영어권 외국인들은 Cellular phone 또는 C. P. 라고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외국 유학 다녀온 사람, 지금도 외국인상대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된 노릇일까. 외국인 상대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휴대전화 또는 휴대폰이라고 적으면 족할 것을 굳이 H. P. 라고 적어서 어색한 모습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정보화 시대의 첨단 통신 수단인 전자우편(이-메일)이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명함, 봉투나 용지에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기가 죽을까봐 그런지, 그럴듯하게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품을 잡지만, 그건 단순 전시용 일뿐, 실지로는 무용지물인 어처구니없는 지식인이 많다. 참 놀라운 일이다. 메일을 보내고도, 마음이 안 놓여, 다시 전화로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건 비효율의 극치고, 만화 감이다. 심한 촌티고, 어쩌면 고등 사기나 국제불신의 발미가 필지도 모른다. 이용도 안 하고 못할 바에야, 아예 이-메일 주소를 적지 않는 게 오히려 망신 예방책이다.

우리 인명, 지명의 영어표기는 영원한 골치거리다. 일본어는 별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참 복잡다단하다. Hong Kil tong, Hong Gil dong, Hong Kil-tong, Kil-tong Hong우리 유(劉)가 표기도, You, Yiu, Yoo, Rhyu, Liu ... 사람마다 구구 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 Kyungju, Kyung ju, Kyung -Ju, Gyeongju, Geyongju...관광안내서, 지도, 도로표지판, 입간판 등이 중구난방이라, 외국인들의 불평도 많이 산다. 지금도 Taegu 와 Daegu, Pusan 과 Busan 은 일상의 실용에서 대치 중이다. 정부의 통일 지침이 바뀔 때마다, 일선에서는 많은 고통과 예산낭비가 따르고, 이용자도 헷갈려서 골치가 아프다. 정부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www.hangeul.or.kr 참고) 통일지침을 마련했으나, 정부기관 자체도 완전소화가 안 되는 판이니, 민간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다. 논란의 여지도 많으나, 일응 그 지침대로, Hong Gil dong, Hong Gil-dong, Daegu, Busan, Gyeongju 하는 식으로 통일해 나가는 수밖에 묘안이 없다.

그러나 아직 이견도 많고, 제 각각이니, 정말 좋은 묘방은 없는 것일까?

● 본 코너의 기고문을 받습니다 ●

기고문을 보내실 학내 구성원은 관련 전공 혹은 대학 문화·대학 발전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대외협력홍보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상주인의 밤' 행사 개최>



경대 포커스

본교 자연사 박물관 개관

자연생태 학술연구·체험학습의 공간으로 활용

대구·경북 유일의 자연생태박물관인 우리 대학 자연사박물관(관장 박희천 교수)이 지난 6일 오전 11시 김달웅 총장, 대학 주요 보직교수, 이의근 경북도지사, 도승희 교육감, 박영언 군위군수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 캠퍼스 자연사박물관 운동장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 날 개관된 자연사박물관은 지질암석관, 공룡화석관, 체험영상실 등 8개의 전시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등 해외 각 지역의 화석 표본, 멸종된 곤충,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등 국내외 다양한 자연사 자료들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국내 자연생태 학술연구와 국제학술자료 수집의 장으로 활용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체험학습의 공간이 될 우리 대학 자연사박물관은 총 56,000여점의 전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관에는 이 중 10,000여점의 전시물이 순환 전시될 계획이다. 자연사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문의 054-383-7026)



'상주인의 밤' 행사 개최

(1면에 이어)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리 대학의 관학협력사업인 향토생활관 건립에 적극 호응한 상주시가 참여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건립기금을 출연함과 더불어, 대학에 재학중인 상주출신 학생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길러주고, 우리 대학과 상주시 양 기관에는 상호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김달웅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설립된 지역거점 대학인만큼 신신학협력과 관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 될 것"이라 말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관학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향후 향토생활관 건립에 참여한 다른 지역자치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는 김근수 상주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 김광남 교육장, 상주지역



각 학교 교장, 학부모 등 상주지역 관계자 70여명이 초청되어 기숙사를 둘러본 후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주출신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상주지역 재학생들을 대표해 안준희(중어중문학과 3학년)학생이 내년 새롭게 건립되는 기숙시설인 향토생활관 공동건립 협약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상주지역 출신 학생들의 면학환경을 지원해 준 상주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교 2004년도 상반기 특별 직장교육 실시

우리 대학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보전산원 세미나실에서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공직자 특별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직장교육은 김달웅 총장의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와 '디지털시대의 직장인의 자세'(이성언 박사) '공직자강 및 성희롱 예방'(박승태 사무국장)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본교, 세계 SCI논문 게재순위 18단계 상승

전년 비해 131편 논문 등재 늘어나 세계순위 310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지난 4일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2003'을 분석한 결과 우리 대학이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내 19개 대학 중 국내 순위 8위(국립대 2위), 세계순위 310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세계 순위인 328위에서 18단계 상승한 것이며 특히 우리 대학은 전년(2002년) 619편의 논문보다 131편(21% 증가)이 증가한 750편의 논문이 등재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SCI'는 과학기술분야의 논문수, 피인용도, 국가별 순위 등을 DB화하여 제공하는 논문색인으로 1년동안 대학,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기타기관에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과학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 대학은 국내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의 세계순위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18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학과 동문들의 뜻 모아 '오송장학금' 출연

지난 7일 오후 5시, 행정학과(학과장 박종화 교수) 교수·학생·동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학과 동창회가 주관한 '오송(梧松)장학금' 출연기념식이 법과대학 502호에서 열렸다.

'오송장학금'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영조 명예교수(행정학과)가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을 계기로 행정학과 동문 500여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총 1억 770만원에 달한다. 이날 출연기념식에서는 석권균 행정학과 동창회장이 김달웅 총장에게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장학금 운용협약서를 교환한 후 이마에, 정선정, 유인혁, 김동욱 학생 등 행정학과 재학생 4명



에게 각 50만원의 '오송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송장학금'의 초석이 된 이영조 교수는 대학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장학금의 의의를 밝혔다.

6기 홍보도우미, 3기 학생리porter 임명장 수여식

우리 대학의 홍보요원인 제6기 홍보도우미와 제3기 학생리porter의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1일 본부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신규홍보도우미 11명과 유입홍보도우미 4명, 신규학생리porter 3명과 유입학생리porter 2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 후 김달웅 총장은 홍보요원들의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의 교육기간을 거쳐 이날 임명된 6기 홍보도우미는 올 한



해 대학 홍보를 위한 행사진행, 견학생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며, 3기 학생리porter는 온라인 홍보매체인 KNU 웹진을 제작하게 된다.

본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한 울릉군에 감사패 전달

우리 대학은 지난 10일, 대학 관학협력사업인 '향토생활관' 공동건설협약을 체결한 울릉군(군수 오창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울릉군은 지난 해 11월 6일 협약체결한 이후 건립기금 1억원을 출연해 우리 대학 '향토생활관'에 10명의 입소권한을 가진다.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향토생활관은 현재 총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중 착공해 내년 후학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수학습센터 개소 설립기념 세미나

강의 평가방법 개선 등 교육지원, 교육자료 개발에 역점

지난 해 9월 설립된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센터장 이성기 교수)가 지난 4월 30일 우당교육관 101호에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설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송엽 한국공학교육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기초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숙명여대와 연세대의 교수학습지원 현황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 날 세미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대학 교수학습센터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교수지원, 학습지원)과 교육자료 개발(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강의모니터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수학습센터는 이를 위해 학내 강의개선 및 평가방법의 개선, 효과적인 교수법 매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효과적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창조력과 응용력, 종합적 판단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학습법 세미나', '글쓰기 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학습센터는 지난 12일 기존의 강의계획서 및 강의평가 문항을 개선하여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노동부장관 초청 특강

지난 3일 대학 중앙회의실에서 '대졸자 취업난과 정부의 지원방향'을 주제로 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초청특강이 열렸다. 중앙회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김대환 장관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경기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청년 실업난을 돌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대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재학중 기업연수나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실업을 완화시키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학생들에게 전문능력 향상과 정부의 지원방향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취업전략을 당부했다.

본교 출판부, 학술총서 10권 완간

우리 대학 출판부(부장 이호철 교수)는 최근 학술연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술총서 10권을 완간하였다. 열 번째 학술총서는 원예학과 윤태명 교수 외 4명의 공동저자가 집필한 『사과의 건강 기능성과 신기술』이다. 우리 대학 학술총서의 역사는 1984년 『한국경제발전과 경영이론』의 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간간히 발간되어 오던 학술총서는 1998년 『신소재 합금』이후 5년 간 한 권도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12월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로 화려하게

부활했으며 『헨리 조지...』의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학술총서가 '학내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이라는 본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반균형모형의 경제학』, 『다시 읽는 존 밀턴의 실낙원』, 『사과의 건강 기능성과 신기술』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학술총서는 올 6월까지 3종, 연말까지는 10종 가량 더 출간될 예정이다. 출판부는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학술총서라는 틀로 아우르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본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준공

우리 대학 테크노파크(단장 최 평 교수)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4일 오전 10시 테크노빌딩과 창업보육센터에서 김달웅 총장, 조혜영 대구시장, 홍석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김국년 대구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보육센터 확장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한 창업보육센터는 올 2월 기준 13개 보육실을 26개로 늘리고 전체 4층으로 증축공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억 매출을 올렸던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말까지 최대 74억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9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이후 전국 BI(Business Incubator)평가에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으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01년 건물을 세워 13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현재 (주)소이벤처, (주)에스펙 솔루션 등 창업 2~3년 미만의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60주년 기념 행사

우리 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이 인구 교수)이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9일 전야행사에 이어 30일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오후 동문·교수·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대 2호관 앞에 '農爲國本' (농위국본: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다) 새겨진 상징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는 일본, 중국 등 5개 자매대학 총장 및 교수들이 각 국의 농과대학이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회를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바이오텍(생명공학) 분야의 하나인 '기능성 생물 신소재 개발 및 이용'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난 1944년 농학과와 농화학으로 출범한 이후 2002년 3월 농과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2개 학부, 9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0년동안 졸업생 11,600여명을 배출하고 재학생 1,200여명을 가진 단과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본교서 '바람직한 학습 방향과 학부모의 역할' 세미나

지난 11일 오후 2시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선택적심 교육과정에 따른 바람직한 학습방향과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교육세미나가 열렸다. 협성교육재단과 영남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500여명의 학부모들은 우리 대학 홍보 영상물을 감상한 후 '수학은 무엇인가', '논술과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대학 입시제도의 전략적 대비' 등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언어영역과 논술의 체계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학과의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대학 입시제도의 전략적 대비' 등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언어영역과 논술의 체계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학과의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동철·하영호 교수 한국과학재단 '2004년도 우수연구성과 30선' 선정

우리 대학 물리학과 손동철 교수와 전자전기컴퓨터학부 하영호 교수가 최근 한국과학재단의 '2004년도 우수연구성과 30선'에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연구성과 30선'은 한국과학재단이 기초과학지식의 확산 및 연구자의 연구의욕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성과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연구성과 30선을 발굴해 선정하는 것이다. 손동철 교수는 '우주에서의 AMS 실험 수행 결과'로, 하영호 교수는 '디지털 칼라 표현의 위한 색현시 모델 및 칼라 프린팅 기법 연구' 성과로 선정되었다.



〈손동철 교수〉 〈하영호 교수〉

수의과대학 50주년 기념 행사

우리 대학 수의과대학(학장 김봉환 교수)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수의과대학에서 기념행사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수의과대학 계단 강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김달웅 총장, 수의과대학 김우홍 동창회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9명에게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층 강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는 충남대 서상희 교수가 'Avian influenza: A key player for pandemic'에 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었던 안수환 박사가 '구제역 및 돼지플레라 방역 강화방안'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수의과대학은 지난 1954년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시작해 1988년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6년제 학제로 개편,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를 신설하여 올 2월 6년제 학제 첫 졸업생 27명을 배출하였다.

본교, 美 Georgia대학교 자매결연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총장 Michael F. Adams)와 교수·학생 교류, 학술정보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양 교간 교류의 세부적인 방향이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자매결연 실무책임자인 Georgia대학 교육심리학과 Bonnie Cramond 교수가 올 여름 우리 대학 과학교육연구소가 주관하는 대구·경북

과학교사 연재 및 창의성 특별연수 강사로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방문기간 중 우리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What is Creativity?'를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Bonnie Cramond 교수는 Torrance Center for Creativity and Talent Development 소장이자 창의성학회(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2004학년도 1학기학생현황

< 2004.4.1 현재 >

구분	재학생	유학생	재적생	구분	구분	구분			
대학	인문대학	1,761	522	2,283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1,107	202	1,309
	사회과학대학	1,060	328	1,388		석사과정	2,265	452	2,717
	자연과학대학	2,096	548	2,644		소계	3,372	654	4,026
	경상대학	1,910	1,014	2,924	특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917	85	1,002
	법과대학	1,122	474	1,596		행정대학원	181	20	201
	공과대학	4,407	1,913	6,320		경영대학원	304	37	341
	농업생명과학대학	1,586	658	2,244		보건대학원	99	11	110
	예술대학	652	149	801		산업대학원	245	31	276
	사범대학	1,512	293	1,805		농업개발대학원	63	5	68
	의과대학	912	36	948		국제대학원	77	16	93
	치과대학	295	5	300		정책정보대학원	96	6	102
	수의과대학	213	36	249		수사과학대학원	44	6	50
	생활과학대학	272	45	317		소계	2,026	217	2,243
	자율전공부	812	67	879	계	박사과정	1,107	202	1,309
	전자전기컴퓨터학부	1,323	1,116	2,439		석사과정	4,291	669	4,960
	계	19,933	7,204	27,137		계	5,398	871	6,269
	합 계				25,331	8,075	33,406		

학술 심포지엄

경상대학, 제18회 LG세미나 강연 개최

경상대학 LG세미나(위원장 하인봉 교수)에서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합동강의실 108호에서 이정우 교수(現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를 강사로 하여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제18회 경상대학 LG세미나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영남문화연구원 「낙동강 유역의 인간과 문화」 워크숍 개최

영남문화연구원(원장 박성봉 교수)이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인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낙동강 유역의 인간과 문화 : 상주권 연구」(연구책임 유명기 교수)를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낙동강 유역의 인간과 문화' 연구는 지난 1차년도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연구에 이어 이날 경북 중서부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워크숍은 '경북 북서부지역의 지역어 비교 연구', '상주권 촌락의 문화' 등 총 7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중형과제 연구팀은 이로써 2차년도 연구성과를 정리하며 8월부터는 경북 남부지역에 대한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사·동정

교원

■ 신규

소속	직명	성명	발령일자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소 의과대학 의학과	연구초빙교수 기금교수	한인숙 양동현	2004. 5. 1 "
"	"	조창민	"
"	"	박선희	"
"	"	김종광	"
"	"	이원주	"
"	"	성영관	"
대학원 수의학과	BK21 계약교수	윤혜선	"

■ 겸보

소속	직명	성명	발령내용	발령일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수 교수	정재동 김일곤	농업생명과학대학실습실습장장 지능형진료지원 및 정보공유시스템개발연구소장	2004. 5. 1 "

■ 면직

소속	직명	성명	발령일자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성영관	2004. 5. 1

■ 파견

소속	직명	성명	발령내용	발령일자
농생대 동물공학과	교수	조진기	미국 미시간대학	2004. 5. 6~7. 2

직원

■ 전입

직명	성명	~에서	~으로	발령일자
교육행정서기 서기관	권덕률 장성영	경주교육청 안동대학교	기획처 산학·연구지원과 교무처 입학관리과장	2004. 5. 1 2004. 5. 3

■ 교육파견

소속	직명	성명	교육과정	파견기간
취업장학과 기획과	교육행정주사보 "	배병태 이현웅	교육행정실무과정 "	2004. 5. 17~5. 21 "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공로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이인석 교수가 지난 4월 30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회장 손준권 교수)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인석 교수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데이터정보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 2004 대한수학회 논문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임용도 교수가 지난 5월 1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2004학년도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에서 "Birkhoff formula for conformal compressions of symmetric cones" 주제의 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정회원



의과대학 의학과 조동택 교수가 지난 4월 30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추천되어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의학계의 학술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은 전국의 의학계를 통틀어 엄격한 학술업적 심사과 경력을 근거로 제한된 인원 167명이 초대 정회원으로 추천되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정회원 자격은 임기 5년으로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출간

『사과의 건강 기능성과 신기술』 출간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윤태명 교수 외 4명의 공동저자가 최근 『사과의 건강 기능성과 신기술』(학술총서 10)을 우리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총 2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는 사과의 건강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사과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제2부에는 사과의 재배 및 저장 관련 신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사과의 건강기능성의 과학적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사과소비에 위한 홍보·마케팅과 연계시키는 등 기존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학 출판부 『책이야기』 출간



우리 대학 출판부는 최근 '책이야기' 2004년 봄호를 발간하여 출판부 신서소개와 출판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 호 '책이야기'에는 출판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2003년 출판부 베스트셀러 도서', '홈페이지 개편 소식', '지역 8개 지자체에 학술도서 기증' 등 최근 출판부소식을 다루고 있다.

경조사

* 결혼 - 축하합니다!

▶ 박경규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장남

- 일시: 2004. 5. 15(토) 12:00
- 장소: 서울 전쟁기념관 전후회관 평화홀

▶ 박상진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임산공학과) 차남

- 일시: 2004. 5. 16(일) 15:00
-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최광선 교수(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차남

- 일시: 2004. 5. 22(토) 14:00
- 장소: 대구 제일교회 분당

* 치상 - 조의를 표합니다!

▶ 오창협 선생(의과대학 행정실) 모친상

- 발인: 2004. 5. 11(화) 경북대병원
- 장지: 구미 선영

▶ 김유경 교수(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시부상

- 발인: 2004. 5. 8(토) 09:00, 전북 장수의료원
- 장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선영

▶ 김수중 교수(전자전기공학부) 빙모상

- 발인: 2004. 4. 19(월) 10:00

알립니다



▶ 규정 제·개정

* 학생기숙사 사생활수칙 개정

<공포번호 예규 제301호 공포일: 2004. 5. 3>

1. 개정 사유

- 1)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용어, 문구 및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거나 재규정함.
- 2) 사생활자치회의 임원을 현실에 맞게 구성함.
- 3) "입사기간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입사 취소 및 납부금의 환불" 조항 신설.

2. 주요 골자

- 1) 사생활자치회의 임원 중 "부동장" 을 "부장"으로 함 (제5조 제1항)
- 2) 용어의 통일 및 내용의 삭제, 수정 및 추가
 - 제6조 2항 "입사기간까지 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 신설
 - 제15조 1·2호의 괄호 속의 "연 2회"를 삭제하고 "3회"를 완전 삭제함.
- 3) 제6장 "면회, 외박 및 통신" 을 "면회, 외박 및 우편물"로 수정함.
- 4) 제20조 "(외출)"을 "외박"으로 하고, 동 조 내용을 "연속 5일 이상 외박할 경우에는 외박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5) 제22조 1항 내용 중 "...시설물 등의 파손 또는 고장 접수..."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사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접수 방법"의 변경)
- 6) 제26조 제3항의 내용(규정이나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 및 경감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3항 및 동항 각 호의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 하고 "4호"를 추가함.

* 행정조직Team 제운영지침 개정

<공포번호 예규 제302호 공포일: 2004. 5. 3>

1. 개정 사유: 산학협력단 업무수행을 위한 산학·연구지원과 행정조직팀 변경

2. 주요 골자

- 1) 종전 (3개팀)
 - 산학협력팀
 - 연구지원팀
 - 과학기술팀
- 2) 변경 (4개팀)
 - 학술지원팀: 교수연구업적 관리 및 학술활동지원업무 등
 - 연구지원팀: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 기술이전팀: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이전 업무, 창업보육 업무 등

Washington Internship 모집공고

1. 프로그램 소개

Washington Internship은 인턴쉽 스폰서 전문업체로써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거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턴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 공공기관,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턴 기회 제공
- 세미나 참가 기회 / 학습기회 제공

2. 지원자격

- 학부 2학년 이상, 대학원생
- 영어실력 상급 이상자: TOEIC 700점 이상 / TOEFL CBT 190점 이상 / 어학교육원 Level 4 이상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

3. 파견예정기간: 2004년 8~9월부터 6개월, 1년, 18개월

4. 모집인원: 10명

5. 제출서류: 해외인턴지원서 1부, 영어증명서류 1부, 영문성적증명서 1부, 영문이력서 1부(소정양식)

6. 모집기한: 2004. 5. 14(금)

7. 인터뷰 일시: 2004. 5. 17(월)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뷰시간 확인요망)

상식

뒤집기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면 시력저하?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상한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피곤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겠지만 눈 자체가 상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동차와 같이 흔들리는 물체에 탑승한 채 글을 읽는다면 안구의 초점을 흐리게 해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NU 엔지니어 우수체험사례 수기모집안내

■ 모집대상: 경북대학교 재학생 중 엔지니어 사용자

■ 수기내용: 엔지니어 우수사용 체험담

■ 작성형식

- 동아리, 학과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며 편리했던 일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일들, 다른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활용 방법, 개선점 등을 정해진 양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 자유형식으로 A4 3-5쪽
- 첫페이지에 학교, 학과(부), 학번, 이름, 엔지니어대번호, 이메일 기재요망

■ 제출방법: 이메일 mobile@knu.ac.kr

■ 제출시한: 2004. 5. 22(토)

■ 발표 및 시상내역: 2004. 5. 29(토) 까지, 모바일홈페이지(mobile.knu.ac.kr)

최우수상(1편) 50만원, 우수상(1편) 30만원

*문의처: #8123, #6661

이공계 연구실 수기공모전 안내

■ 응모기간: 6월 20일까지

■ 응모자격: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해외 체류 과학기술인, 기타 과학기술 관련 분야 종사하는 분

■ 응모방법: E-mail (scieng@scieng.net)

■ 시상 및 심사

-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가작 3편: 상금 각 20만원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지급

■ 문의사항: 02-3477-4212, E-mail(scieng@scieng.net)

고에너지물리연구소 Seminar 안내

■ 제 목: Silicon Tracking Calorimetry

■ 연 사: 박일홍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일 사: 2004년 5월 13일 (목) 오후 4시

■ 장 소: 제1과학관 216호



발행: 경북대학교

편집: 기획과 대외협력홍보팀

발행일: 2004. 5. 13

통권 제 966호

▶ '경북대소식' 967호 원고모집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967호 경북대소식은 5월 29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공지사항이나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대외협력홍보팀에 알려주십시오. **교내 핸디오피스나 아래 E-mail로 원고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기획과 대외홍보협력팀

담당자 신기훈, 손명진

• 문의: ☎ 950-6077~8

• 팩스 950-5099

• 제출기한: 2004. 5. 20까지

• ghshin@knu.ac.kr

• sully@knu.ac.kr

▶ 바로잡습니다

지난 965호 '의과대학 통합교육과정 벤치마킹 사례로 인기' 기사 중 '의과대학 정성광 학장'을 '의과대학 박병철 학장'으로 정정합니다.